

의미의 강조에 의한 운율특징

—음향음성학적 관점에 의한 분석—

김선희(수원대)

<차 례>

- | | |
|----------------|--------------|
| 1. 머리말 | 2.2. 실험과정 |
| 2. 연구방법 | 3. 실험결과 및 해석 |
| 2.1. 분석대상 및 방법 | 4. 맺음말 |

<Abstract>

The Variation of Prosody by Focus

Seonhi Kim

There are sentences where sentence stress is imposed on a specific word. These sentences are called 'focused sentenc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variation of pitch, duration, amplitude in focused words. It is noted that pitch of a focused word is higher than that of unfocused words irrespective of the accentual pattern, and that contour tones such as HL or LH are realized longer when these tones appear in focused words. Not only the noun but also the following particle like '-boda' is higher when these words are in focus. Hence pitch is proved to be the most salient prosodic feature of the focused sentence.

1. 머리말

언어표현에 있어서 동일한 문법구조를 형성하면서 상이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특히 문 안에서 어떤 하나의 단어가 강조되어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대화자간에 서로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¹⁾를 전달하기 위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초점(focus)²⁾을 둔다고 하며, 음성적인 자질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리켜 돌출림(prominence)³⁾이라 표현하여 서로 개념을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와 같은 언어구조를 가진 경우, 의미의 강조 효과를 나타내는 언어학적인 요소로는 1) 어휘적인 요소, 즉 특정어의 삽입, 또는 조사의 교체⁴⁾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2) 문법적인 방법으로는, 문의 도치나 문구조의 형태의 변형 등을 들 수 있고, 3) 음성적인 방법으로는, 음조의 변화를 비롯한 운율요소의 특징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 특히 음성적인 특징은 의미의 강조를 위해 나타나는 독자적인 특징으로도 간주되어지나, 발화문 형식에서 1)과 2)와 같은 요소에 의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변화로도 해석된다.

지금까지 초점에 관한 음성적인 변화양상에 있어서, 이미 일본어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행해지고 있고, 방언간 비교 분석 및 서로 다른 악센트 체계를 가진 타언어와의 비교⁵⁾도 눈에 띈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질 대구방언은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고저악센트 언어라는 점에서 일본어의 선행연구에도 관심이 간다. 즉 언어의 영역을 넘어 같은 운율특징을 가진 언어공통의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의 예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 "Willie married Linda."가 주어와 목적어에 각각 초점을 받으면 그 요소에서 피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郡(1989)는, 일본어에서 초점이 놓이는 단어 악센트의 경우, 운율요소 중 음조패턴에 있어서의 일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외에도 음성환경⁶⁾에 따라서는 지속시간에도 다소의 변화가 관찰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때 초점에 의해 강조되는

- 1) 대화자간의 전달 요소 중 이미 제시되거나 예측 가능한 부분을 구정보라 하는데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부분을 신정보라는 용어로 정리할 수 있다.
- 2) 문중의 특정 부분이 의미적으로 강조되는 것을 가리키며, 이하에서는, 그 부분에 '초점이 있다' 또는 '초점을 받는다'라든가, 줄여서 '초점어' 라는 표현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3) 돌출림(prominence)은 초점이 음성적인 방법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초점의 음성 구현으로 설명된다. 일본어에서는 卓立(たくりつ)이라고 번역되어 focus(焦點)와 구별해서 사용되어 오고 있다.
- 4) 한국어나 일본어에서 주어가 초점을 받는 경우, 조사는 은, 는(は) 대신에 이, 가(が)가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
- 5) 郡(1989b)에서는, 초점을 받는 단어는 운율요소 중 음조에 있어서 그 변화 양상이 두드러진다고 하고, 일본어와 같이 고저악센트 체계의 언어뿐 아니라, 영어 등의 다른 악센트 체계를 가진 언어에서도 유사한 특징의 변화가 관찰된다고 시사하고 있다.
- 6) 郡(1989a)에서는, 어떤 자음의 경우에는 자음의 지속시간이 연장되는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예를들면 /s/와 같은 자음이 포함되어 있을 때 지속시간이 길어진다고 하고 있다.

부분만이 아니고, 그 단어의 전후에 위치하는 단어에도 음조변화가 일어나, 결국 문 전체의 억양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있다.

前川(1996)는, 강조되는 단어의 음역(pitch range)이 확대되고, 초점 전후의 악센트구에서는 지속시간의 단축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추론되는 것은, 일본어의 경우 초점을 받는 어는 단어 악센트의 고저변화가 뚜렷해지고 동시에 그 뒤의 어군의 악센트의 고저변화가 억제된다고 하여, 결국 초점어의 ‘악센트 강화’와 더불어, 그 전후 요소의 음성적 자질의 감소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더 확대되어 단순한 음성자질의 변화로서뿐 아니라, 악센트구의 유형화와 같은 ‘악센트구’ 형성에 관련된 해석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즉 이러한 경향은, 초점에 의한 음성변이를 단지 음성학적인 특징으로만 국한해서 해석하지 않고, 언어학적인 효과라는 맥락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본 논문에서는 고저 악센트 체계를 가진 대구방언에 관하여, 초점에 의한 음성적인 자질의 변화에 관하여 관찰 분석한다. 음성자질로는 음조의 변화뿐 아니라, 지속시간, 강도 등의 다른 운율 요소의 특징의 변화에 관해서도 관찰한다. 또한 초점을 받는 단어뿐 아니라 그 전후 요소의 운율자질의 변이에 관해서도 살피고, 변이가 일어나는 범위와 그에 관련한 언어학적인 효과에 관해서 해석을 덧붙인다.

2. 연구방법

2.1. 분석대상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대구방언의 초점에 의한 운율특징의 변화양상을 관찰 분석한다. 이를 관찰하기 위한 분석 자료는 대화체 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점 문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비초점문 즉 중립문도 동시에 관찰한다.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피험자에게 먼저 중립문을 제시하고, 동일문의 각각 다양한 요소에 초점이 오도록 유도하는 질문문을 만들어 대답하게 하고, 이를 카드로 작성했다.

피험자는 대구의 토박이로 남녀 4명(20-30대)을 선정하였으나, 남자 1명의 경우는 초점에 의한 효과를 음성적인 요소보다는, 도치 생략 등의 문법적인 요소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서, 본 연구의 음성분석의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아 통계분석에는 여성 3명만의 결과를 사용했다.

실험기기로는, 1999년 杉藤에 의해 개발된 음성분석 프로그램인 Sugi-Speech Analyzer를 사용했다. 이는 파형 및 피치, 스펙트로그램 등의 음성정보가 정밀하게 표시되며, 오산에 의한 피치 표시의 수정이 가능하고, 피치의 비교, 계산치의 통계 분석까지 프로그램 자체에서 지원된다.

실험시의 음성입력의 방식은, 피험자가 직접 분석기기 앞에서 준비된 문장 카드를 들고 낭독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 문장에 대해 5회씩 발음하게 하고 그중 호흡상태가 고르고 무성음 등으로 인한 잡음 등의 불필요한 요소가 없는 3회의 발화만을 각각 통계처리에 포함시켰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한번 입력된 음성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형식으로 파일 저장해서 반복 사용할 수 있다.

2.2. 실험과정

실험의 순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서 행한다.

실험1) 문 안에서 한 단어에 초점이 있을 때, 그 부분의 음향음성학적 변화양상을 관찰한다. 이 때 초점을 받는 단어의 악센트형을 고저조와 저고조⁷⁾로 나누어, 각 형에 따른 운율특징의 변화유형을 분석한다.

실험2) 초점에 의해 음성변이가 일어나는 영역에 관하여 살피고, 그 운율 특징에 관하여 관찰한다.

측정 대상(parameter)은 단어악센트를 특징짓고 있는 높이(F0)의 변화, 물리적인 강도(intensity)의 변화, 그리고 지속시간(duration)의 변화 등이다.

3. 실험결과 및 해석

대구방언은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변별 기능이 있는 고저악센트 체계를 가지며, 악센트의 유형은 고저조(HL)와 저고조(LHL)⁸⁾(金 1996)로 나누어 진다.

고저조로 이루어진 다음과 같은 예문에 대해 관찰해 보자. 이 문들은 (예1)에 비해 (예2), (예3)의 경우, 문의 앞부분에서 제시된 어구에서 예상할 수 있는 술어와는 거리가 있는 술어가 삽입되었다. 이를 필자는 초점문의 일종으로 보고, 문 전체의 억양의 추이 형태에 관하여 관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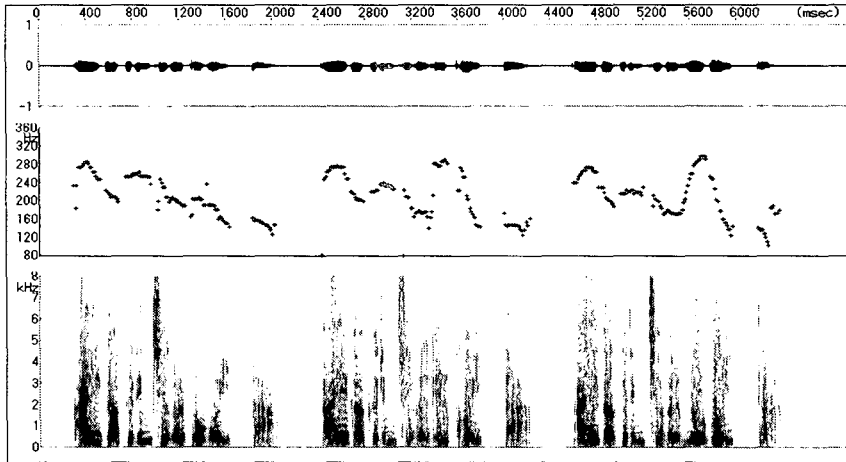
7) 대구방언의 경우 Haraguchi(1977)의 기본멜로디 이론에 입각하여 음운론적인 악센트형을 정리하면, 고저조와 저고조로 이분화 할 수 있다. 이는 단어의 음절 수에는 상관없이 높은 음조로 시작하느냐, 낮은 음조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각각 고저조, 저고조로 해석할 수 있다. 대조적으로 동경방언의 경우, 악센트 핵이라 하여 음조의 하강이 일어나는 위치만이 음운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여, 고저조만 인정하고 있다.

8) 위의 내용.

아이가 그림책을 보고 있다.(예1) <그림 1>

아이가 그림책을 읽고 있다.(예2) <그림 2>

아이가 그림책을 물고 있다.(예3) <그림 3>



<그림 1, 2, 3> 아이가 그림책을 보고 있다.읽고 있다.물고있다.

위의 분석 데이터는 2.1.장에서 명시된 대로 SUGI Speech Analyzer를 사용해서 얻은 것이다. 자연스러운 발음을 수록하기 위해, 발화의 전체 시간은 7000ms.로 설정해서 무음구간을 삭제하는 방법을 택했다. 실험 데이터는, 세 개의 단으로 음성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중 상단은 파형을 나타내며, 중간단은 피치, 그리고 하단은 스펙트로그램 표시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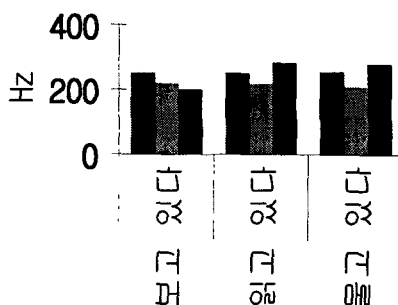
<그림 1, 2, 3>에서 나타난 것처럼, 억양을 형성하는 음조패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술어에 위치한 단어가 서로 동일한 고저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어부의 음조 패턴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예1)은 의미상으로도 가장 중립적인 문이라 할 수 있고, <그림 1>에서처럼 그에 따른 음조도, 단어의 본래의 악센트형이 유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발화의 생리음성 현상인 자연하강(declination)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림 2>, <그림 3>에서는 술어부의 피치가 상승되어 그 상한가는 어두의 요소인 주어보다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부분에 초점이 놓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초점을 받는 단어 앞의 요소인 목적어는 피치가 억제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측정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측정치중 ()안은 표준편차를 나타내며, 숫자의 굵은 글자체는 초점을 받는 어구의 측정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립문과 비교가 된다. (이하 동일)

<표 1> 아이가 그림책을 보고 있다.....읽고 있다.....물고 있다. 의 피치의 최고치.

	아이가	그림책을	(술어)
보고 있다	251.33(29.37)	220.00(21.36)	201.33(13.43)
읽고 있다	250.67(33.45)	217.00(19.31)	283.33(24.58)
물고 있다	255.67(4.04)	209.33(7.64)	280.67(13.43)



위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술어부의 피치가 (예1)에서 처럼 201.33Hz 인데 비해 (예2)와 (예3)의 경우 각각 283.33Hz, 280.67Hz로 술어부의 피치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동시에, 문말의 동사의 피치가 높아질수록 그 앞의 단어가 있어서는 피치하강이 관찰되어 진다.

다음은 다양한 악센트 형에 따른 단어가 초점을 받을 때,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하도록 한다. 대구 방언에 있어서 억양은, 초점에 상관없이 단어 악센트의 형에 따라서도 그 양상이 다르므로⁹⁾, 여기서는 악센트 유형별로 나누어서 문음조의 변이를 분석한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민들레가 맨드라미보다 예쁘다. (예4)

LHH L[^]H[^]L LHL L[^]H[^]L

며느리가 아들보다 멋지다. (예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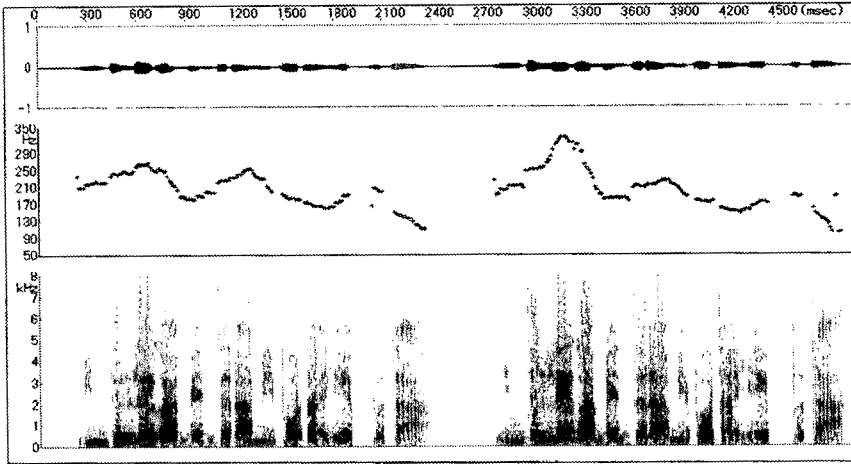
HLL H[^]L LHL HHL

위의 예문 중 (예4)는 문중의 단어가 저고조 악센트형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이하 저고조 악센트문), 접속조사 ‘보다’는 둘째 음절이 음절내 하강조¹⁰⁾, 술

9) 金(1996)에, 고저조의 악센트어가 문안에 위치할 때는 자연스럽게 하강한다는 문 억양의 형성에 위배되지 않으나, 저고조일 경우에는 문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강조와 구 내부의 상승조가 서로 교차되어 문 억양이 형성된다고 되어 있다.

10) 대구방언에 있어서는, 음절내 상승조 및 하강조가 존재한다. 이들은, 음성학적으로 볼

어의 ‘예쁘다’는 첫 음절이 음절내 상승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예5)는 문중의 단어가 고저조 악센트형의 단어들로 구성된 예이다(이하 고저조 악센트문). <그림 4>와 <그림 5>의 실험데이터는 (예4), (예5)의 문들의 중립문과 각각의 요소별로 초점을 부여할 때의 음조변이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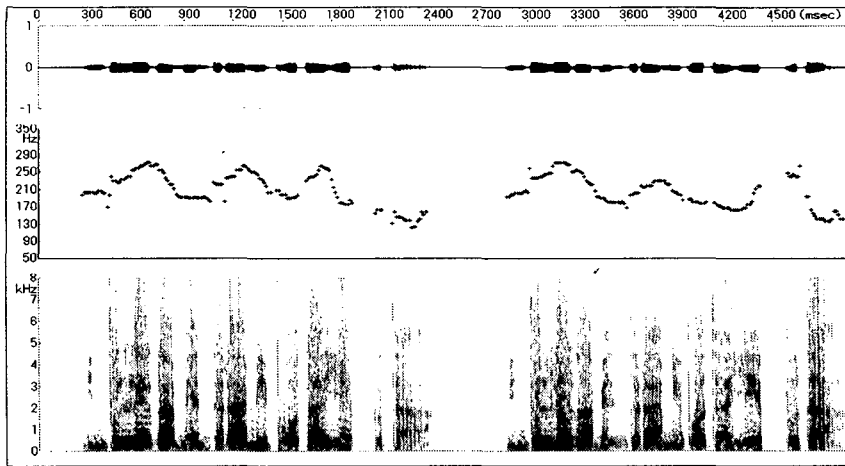
민들레가 맨드라미보다 예쁘다. 민들레가 맨드라미보다 예쁘다.
 <그림 4-1> 고저조 악센트문의 중립문과 첫구에 초점이 있는 문.

<그림 4-1>은 저고조 악센트문의 중립문과 문의 첫 구에 초점이 있는 예문의 경우의 음조의 변이양상을 나타내며, <그림 4-2>는 <그림 4-1>과 동일문의 각각 둘째 요소와 셋째 요소에 초점이 있는 예문의 음조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림 4-1>과 <그림 4-2>의 각 구의 최고점을 발화자수와 발화수를 합하여 평균 낸 값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음조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 전체의 음조는 하강해 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구 경계(phrasal boundary)에 따라 그 내부에서는 상승되어 가는 단어 악센트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 문의 첫 구절의 위치에 있는 단어가 초점을 받을 경우, 저고조 악센트형을 가진 단어의 음절간 상승폭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구의 최고치 또한 290.67Hz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와 동시에 초점뒤의 구에서는 피치가 204.00Hz로 억제되어 있는 결과도 보인다.

때 자연상승이나 자연하강에 비해 F0의 변화폭도 크며 지속시간도 길다. 이는 일부의 일본의 한국어 연구분야에서 일본어의 모라와 같은 길이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단 여기 제시된 ‘-보다’의 경우 둘째 음절이 하강하여 LH로 발음되는 경우와 조사 앞의 명사에서 하강이 있을 경우 LL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다.



민들레가 맨드라미보다 예쁘다. 민들레가 맨드라미보다 예쁘다.
 <그림 4-2> 둘째 구에 초점이 있는 문과 마지막 술어구에 초점이 있는 문.

<표 2> 저고조 악센트문의 초점어의 높이 최고치.

	민들레	맨드라미보다	예쁘다
중립	252.67(11.55)	231.33(20.21)	189.67(11.59)
1	290.67(31.39)	204.00(17.09)	173.67(13.05)
2	254.33(14.98)	248.67(11.55)	172.00(11.00)
3	254.33(14.98)	218.00(10.54)	241.00(9.54)

* 표 안의 세로축의 '중립'은 중립문의 의미이고 숫자는 각각 문의 첫째, 둘째, 셋째 구에 초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

그리고 <그림 4-2>가 시사하는 대로 두 번째 구에 위치하는 단어가 초점을 받을 경우, 실제로 초점을 받는 단어는 물론이고 그 뒤에 접속된 조사의 부분에서 피치가 증가¹¹⁾한 것이 눈에 띄게 관찰된다. 결국 둘째 구에서는, 원래 단어의 피치의 최고점을 형성하는 단어의 둘째 음절과, 그 뒤에 접속된 조사의 높이가 동일할 정도로 높아져서 피치의 산이 두 개 형성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 4-1>의 중립문과 비교해 보면, 접속조사 '보다'의 지속시간도 증가되었다. 이와 같이 초점을 받을 때 그 단어 뿐 아니라 그에 접속된 조사의 피치 및 지속시간이 변화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또한 음절 내 저고조를 나타내고 있는 술어 부분에 초점이 가해질 경우를 살펴 보면, 중립문과 비교해 볼 때 음절 내 피치의 차가 현저하고 최고치도 241.00Hz로

11) 郡(1997)에 의하면, 일본어에서도 이러한 접속조사나 단어의 특정부분에서 피치의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나, 초점에 의해 직접 야기되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보기보다는, '강조상승조'라 하여 발화방법의 하나의 특징으로 간주하고 있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초점받는 어구의 앞에 위치한 구에서는 피치가 억제된 현상도 관찰된다. 여기서도 초점어의 피치의 상승과 아울러 지속시간의 증가가 관찰된다. 이는 金(1996)에서 밝혀진 대로, 대구방언의 경우 음절 내에서의 피치의 상승·하강조의 경우, 다른 음절에 비해 지속시간이 길다는 특징과도 상통하는 점이다. 지속시간에 관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去年ははるローマ ↑ に行きました。
 去年ははるロー ↑ マに行きました。

위의 예문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원래의 단어 악센트 외에 조사 ‘に’와 로마의 ‘マ’에서 피치가 높아졌다.

<표 3> 저고조 악센트문의 초점어의 지속시간.

	맨드라미보다	예쁘다
2	900.33(62.93)	633.33(23.09)
3	867.00(16.00)	693.00(22.00)

(단위는 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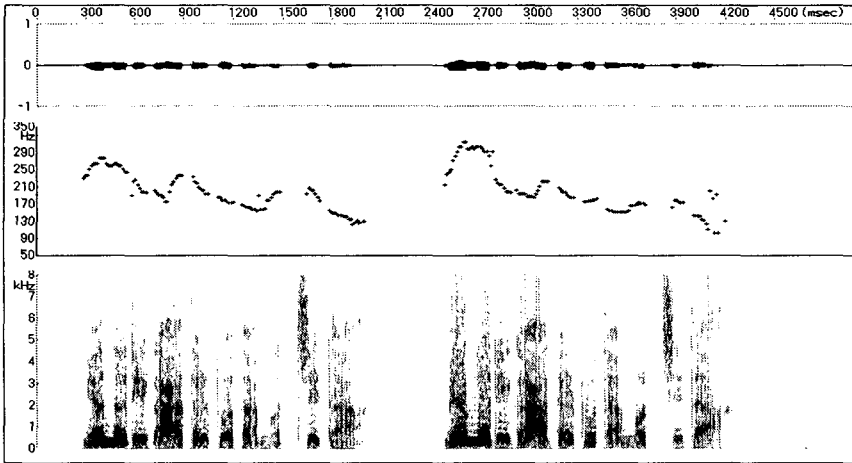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대구방언의 경우, 초점에 의해 피치 및 지속시간이 상승되는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강도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특징은 보이지 않고, 피치의 증가에 수반하여 약간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다¹²⁾.

다음은 고저조 악센트를 가지는 단어들이 문을 구성하고 있는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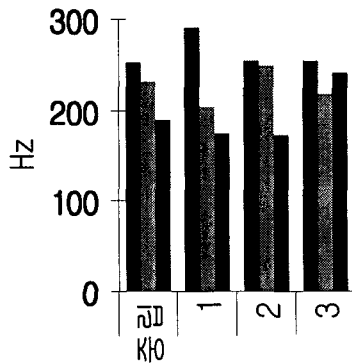
<그림 5-1>은 각각 고저조 악센트문의 중립문과, 문의 첫 구에 초점을 둘 때의 예문의 음조변이 형태를 나타내며, <그림 5-2>는 둘째 구와 셋째 구에 초점을 둘 때의 음조변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4>는 위의 <그림 5-1>, <그림 5-2>의 데이터에 나타난 각 구의 최고점을 계산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 및 <표 4>의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중립문은 전체가 자연스런 하강조를 보이는데 비해 첫 구에 초점이 있는 문의 경우 첫음절의 피치가 다른 문에 비해 296.00Hz로 높아진 결과를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둘째 구에 초점이 있는 경우 초점어에서 피치가 245.67Hz로 상승해 있다. 이때는 <그림 4-2>에서와 마찬가지로 초점을 받는 단어보다 그 뒤에 접속된 조사의 둘째 음절에서 피치의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12) 대구방언의 경우 악센트는 고저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체계화 할 수 있으며 강도는 피치 및 모음의 성질 등에 의해서 부수적인 특징으로 나타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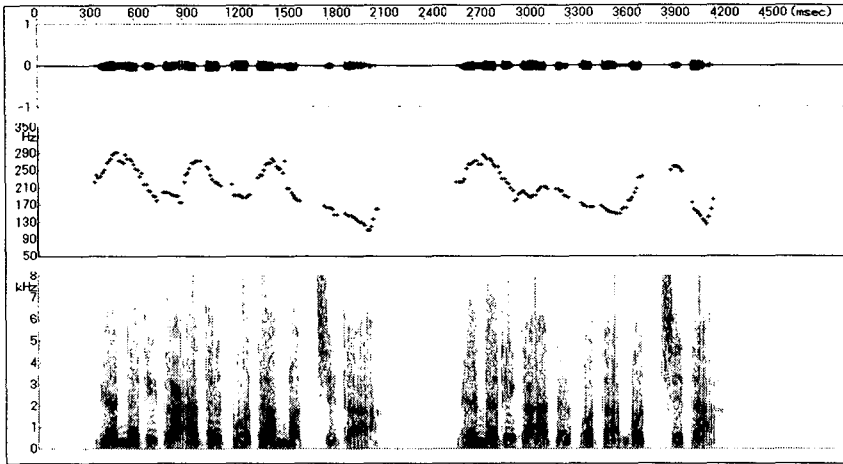


며느리가 아들보다 멋지다. 며느리가 아들보다 멋지다.
 <그림 5-1> 고저조 악센트 문의 중립문과 첫구에 초점이 있는 문.



그리고 셋째 구에 초점이 있는 경우는 초점어가 문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에 비해 동사의 피치가 238.00Hz로 상당히 높아진 결과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초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치가 상승되고, 그 전후의 요소에는 피치가 억제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된다. 그리고 <그림 4>에서와 마찬가지로 초점을 받는 단어에 접속된 조사의 피치 뿐 아니라 지속시간의 증가가 보이고 있다. 지속시간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둘째 구에 초점이 있는 문의 경우, 초점을 받는 구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지속시간이 약 60ms 길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셋째 구에 초점이 있는 경우는 초점을 받아도 지속시간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즉 지속시간의 변화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표 3>과 <표 5>의 결과는, 앞에서 설명한 음절내 상승조, 하강조의 경우에만 장음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해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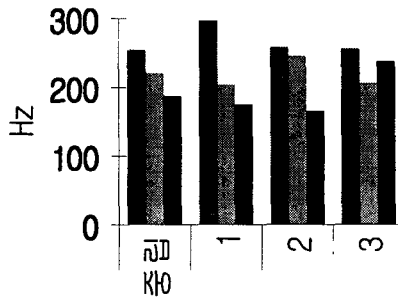


며느리가 아들보다 멋지다. 며느리가 아들보다 멋지다.

<그림 5-2> 둘째 구에 초점이 있는 문과 마지막 술어구에 초점이 있는 문.

<표 4> 고저조 악센트문의 초점어의 높이 최고치.

	며느리	아들보다	멋지다
중립	254.67(22.19)	220.33(13.05)	187.67(16.56)
1	296.00(14.93)	204.00(15.59)	175.00(2.00)
2	258.33(28.43)	245.67(22.50)	165.33(10.02)
3	256.67(25.66)	206.67(8.50)	238.00(17.58)



<표 5> 고저조 악센트문의 초점어의 지속시간.

	아들보다	멋지다
2	571.00(26.46)	663.33(22.74)
3	514.00(3.46)	668.67(44.61)

(단위는 ms.)

4. 맺음말

이상에서 보아온 것을 정리하면, 대구방언의 경우는 초점에 의해, 피치의 변화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어 악센트의 종류 특히 음절 내 상승조 및 하강조에서는 지속시간의 증가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점이 있는 단어뿐 아니라 초점어에 접속한 조사에 있어서도 피치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최고치가 명사보다 오히려 조사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도 알 수 있다. 즉, 초점에 의한 음조변이의 범위가 단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구 전체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초점어 뿐만 아니라 초점 전후의 요소에 있어서도 음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어와 유사한 점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엄밀하게는 일본어에서는 초점후의 요소는 필수적이었는데 반해서 초점 전의 요소에서의 음조변이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과는 서로 상이한 점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구방언의 경우, 조사에 따라서는 음조변이가 초점어보다 그 직후의 조사에 더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초점에 의한 운율변이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위의 예들에서 살펴본 대로, 초점에 의한 피치, 지속시간, 강도 등의 모든 운율 요소에 있어서의 변화는 나타나지만, 그 효과가 시사하는바가 동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언어학적인 기능변화에 가장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요소는 피치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어의 악센트형에 따른 초점문의 운율특징의 변화를 관찰했고, 그 중 피치의 변화에 의한 음조의 변이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구방언의 단어 악센트의 특징에서도 관찰되어진 음절 내 상승조 및 하강조의 장음화 현상이, 초점부여와 같은 언어의 기능상의 변화문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점문의 음조 변화가 조사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나, 본 연구 결과로 보나, 예측되는 점으로 보나 모든 조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비교격조사 '-보다'의 기능상의 특수성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 깊이 다뤄 볼 필요성을 느낀다.

참 고 문 헌

- 김선희(1995), 단어악센트의 인토네이션에 끼치는 영향, 일본학회발표논문집.
 이영길(1999), 억양과 초점에 관한 화용론적 연구, 「말소리」 제38호, 1-24, 대한음성학회.
 전은주(1991), 한국어 초점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金善姬(1994), 大邱方言の文中における語アクセントの現れかた, 113-118, 日本音聲學會全國大會發表論集.
 _____(1996), 韓國語大邱方言の韻律の研究 -音響音聲學的觀點から-, 筑波大學學位論文.

- 郡史郎(1989a), フォーカス實現における音聲の強さ, 持續時間, F0の役割, 音聲言語3, 29-38, 音聲言語研究會.
- _____(1989b), 強調とイントネーション, 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2, 316-342, 明治書院.
- _____(1997), 日本語のイントネーション -型と機能-, 169-202, アクセント・イントネーション・リズムとポーズ, 三省堂.
- 杉藤美代子他(1997), 文の構造とプロソディ, 文法と音聲, 3-20, くろしお出版.
- 土岐哲(1989), 中國人・韓國人・アメリカ人による日本語のイントネーションとプロミネンス, 講座日本語と日本語教育3, 258-287, 明治書院.
- 前川喜久雄(1990), 無アクセント方言のイントネーション, 音聲言語4, 87-110, 音聲言語研究會.
- _____(1991), 東京方言疑問文のイントネーション, 日本音聲學會全國大會研究發表論集, 42-47.
- _____(1996), フォーカスが發話の時間構造と母音フォルマントにおよぼす影響, 日本音響學會講演論文集, 203-204.
- Atkinson, J. (1973), Aspects of intonation in speech, Implications from an experimental study of fundamental frequency, unpublished Ph.D. thesis, University of Connecticut.
- Cooper, W.E., S.J. Eady and P.R. Mueller (1985), Acoustical Aspect of Contrastive Stress in Question-Answer Contexts, *JASA* 77, 2142-2156.
- Fujisaki, H. and H. Kawai (1988) Realization of linguistic information in the voice fundamental frequency contour of the spoken Japanese, *Ann. Bull. RILP*, 22, 183-92 Univ. Tokyo.
- Haraguchi, S. (1977), The tone pattern of Japanese; An autosegmental theory of tonology, Ph.D. Dissertation. M.I.T.(開拓社,東京).
- Maekawa, K (1997), Effects of focus on duration and vowel formant frequencies in Japanese, In Sagisaka, Y. et al. (ed.), *Computing Prosody, Computational Models for Processing Spontaneous Speech*, Springer.
- Pierrehumbert, J. and M. Beckman (1988), *Japanese tone structure*, Cambridge: The MIT Press.
- Yi Xu (1999), Effects of tone and focus on the formation and alignment of f0 contours, *Journal of Phonetics* 27, 55-105.

접수일자: 2000년 9월 17일

게재결정: 2000년 10월 31일

▶ 김선희(Kim, Seonhi)

주소: 경기도 화성군 봉담읍 와우리 산2-2

소속: 수원대학교

전화: 031) 220-2590

E-mail: tsukuba@unitel.co.kr